

“빛의 언어로 소통한 세계의 젊은 과학자들”

GIST 고등광기술연구원, 제15회 레이저·광기술 여름학교 ‘SSOLLA 2025’ 개최

- 7월 14일(월)부터 5일간, 아시아 7개국 참가자 대상 합숙 교육 및 첨단 연구시설 체험 진행... 국제 교육 프로그램 통해 초강력 레이저 기술 기반 연구성과 확산
- GIST, 고등광기술연구원 중심으로 국제 광기술 교육·연구의 허브로 도약



▲ GIST 고등광기술연구원이 지난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5일간 ‘레이저·광기술 여름학교(SSOLLA) 2025’를 개최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고등광기술연구원(APRI, 원장 고도경)이 개최한 국제 교육 프로그램 ‘레이저·광기술 여름학교(SSOLLA 2025)’가 지난 7월 18일(금),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종료됐다고 밝혔다.

‘SSOLLA(Summer School of Laser and Light Applications)’는 고등광기술연구원이 2010년부터 매년 주최해 온 국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제15회를 맞았다. 세계 각국의 광기술 전공 학생 및 연구자들이 5일 간의 합숙을 통해 레이저 및 광학 기술의 기초부터 응용까지 폭넓게 학습하고, 첨단 연구 인프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올해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타이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아시아 7개국에서 온 13명의 학생과 연구자가 참가해, 국가 간 광기술 인재 교류와 협력의 장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베트남과학기술원 산하 연구소, 캄보디아 프놈펜 왕립대학교,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교 등 아시아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으로, GIST 교수진과 고등광기술연구원 연구자들이 진행한 총 7개의 전문 강의와 실습에 참여했다.

강좌는 ▲고출력 및 광섬유 레이저의 기초와 응용 ▲비선형 광학 ▲나노광학 ▲바이오메디컬 광학 ▲양자광학 ▲레이저 안전 등 첨단 레이저 및 광기술 전반을 포괄했으며, GIST의 초강력 레이저 시설인 ‘극초단 광양자빔 특수연구동’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 현장을 직접 견학하며 한국 광기술의 경쟁력을 체감했다.



▲ ‘레이저·광기술 여름학교(SSOLLA) 2025’ 참가자들이 고등광기술연구원의 핵심 연구시설인 극초단 광양자빔 특수연구동을 견학하고 있다.

고등광기술연구원 고도경 원장은 “SSOLLA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아시아의 차세대 광기술 인재들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국제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와의 연계를 확대해, GIST의 광기술 역량을 세계와 공유하고, 글로벌 공동연구의 허브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고도경 고등광기술연구원장이 '레이저·광기술 여름학교(SSOLLA) 2025'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편, 올해 개원 24주년을 맞은 GIST 고등광기술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광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으로, 세계 최초로 20펨토초(1펨토초=1,000조분의 1초)·4.2페타와트(1페타와트=1,000테라와트)급 초강력 레이저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올해 3월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승격된 고등광기술연구원은 **초강력 레이저 및 광 기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우주, 국방, 바이오, 양자정보 등 미래전략 분야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광기술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